Asyla, Op. 17

- □□

정보

개요
곡명: Asyla, Op. 17
작곡가: Thomas Adès (1971–)
작곡 시기: 1997년
초연: 1997년 10월 1일, Birmingham Symphony Hall,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Simon Rattle 지휘
위촉: John Feeney Charitable Trust가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를 위해 위촉
장르 ·구성: 대편성 관현악곡, 네 악장

Wikipedia: Asyla

Thomas Adès의 Asyla는 1997년에 쓴 네 악장의 관현악곡이다 . 처음과 끝에 각각 한 악장을 두고 그 사이에 느린 악장과 춤 악장을 배치했으며 , 악장 사이에는 짧은 휴지만 둔다. 출판사와 작곡가의 작품 목록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진 악장은 셋째 악장 Ecstasio뿐이다. 네 악장과 교향악단을 사용하는 구성은 교향곡을 떠올리게 하지만, 작품의 공식 제목은 Asyla다.

제목이 가리키는 곳

Asyla는 라틴어 asylum의 복수형이다 . 하나의 말에 피난처나 보호 구역과 수용 시설 또는 정신병원의 뜻이 공존한다. 초연 프로그램 노트를 쓴 Matias Tarnopolsky는 첫 악장에서 넓은 바깥 공간을, 가운데 두
악장에서 닫힌 공간을, 마지막 악장에서 그 경계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읽어 낸다. Paul Griffiths는 콘서트홀과 교향곡이라는 형식 자체도 사람이 잠시 머무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두 설명은 작품을 이해할 만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 네 악장이 특정 장소를 차례로 묘사한다는 작곡가의 줄거리는 아니다.

카우벨과 공, 서로 다른 높이로 조율된 피아노가 만든 울림 속에서는 익숙한 관현악의 음정과 박동이 조금씩 낯설어진다 . 셋째 악장에 이르면 콘서트홀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클럽 음악의 반복 박동이 악단 전체를 움직인다. 제목의 두 뜻은 어느 악장에나 하나씩 배당되지 않는다. 같은 악기들이 편안한 울림과 불안한
어긋남을 번갈아 만들면서 네 악장을 잇는다.

출판 정보

Faber Music이 악보를 출판하고 관현악 파트를 대여한다. 현행 판매 악보의 번호는 057151863X이며, 출판사의 작품 페이지에는 작곡 연도, 위촉과 초연, 상세 편성이 실려 있다.

소요 시간

약 2225분이다. Faber Music의 작품 목록은 25분, 판매 악보 설명은 22분을 제시한다. 초연 지휘자 Simon Rattle과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가 1998년에 녹음한 전곡은 약 22분 30초, Adès가 Londo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2016년 녹음은 약 24분이다. 두 녹음에서 첫째 ·둘째 악장은 각각 대략 6분, Ecstasio는 67분, 마지막 악장은 약 5분을 차지한다.

편성

목관은 flute 3(제 2·제 3주자는 piccolo, 제 3주자는 bass flute 겸임), oboe 3(제 2주자는 cor anglais, 제 3 주자는 bass oboe와 선택적 cor anglais 겸임), clarinet 3(제 2주자는 bass clarinet, 제 3주자는 contrabass clarinet 겸임), bassoon 3(제 3주자는 contrabassoon 겸임)으로 구성된다. 금관은 horn 4, trumpet 3(제 3 주자는 piccolo trumpet 겸임), tenor trombone 2, bass trombone 1, tuba 1이다. 현악 5부와 harp가 함께한다.

여섯 주자가 맡는 percussion에는 timpani와 rototom, tuned cowbells, 여러 종류의 gong과 cymbals, glockenspiel, crotales, bass drum 등이 들어간다. 금속통, 식기류, washboard, sandpaper blocks, geophone, water gong도 악보의 음색을 이룬다. 건반은 두 연주 파트가 나누어 맡는다. 첫 파트는 grand piano와 보통 조율의 upright piano를, 둘째 파트는 관현악 기준음보다 4분의 1음 낮게 조율한 upright piano와 grand piano, celesta를 겸한다. 피아노 종류가 여럿이라고 해서 독립된 피아니스트를 그 수만큼 추가하는 편성은 아니다.

소리를 만드는 방식

첫머리에 들리는 카우벨의 음형은 일반적인 타악기 도입보다 음높이가 뚜렷하다. 다른 금속 타악기와 현악의 높은 소리가 여기에 붙으면, 강하게 울리는 순간뿐 아니라 울림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화성이 변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낮게 조율된 upright piano는 다른 악기와 같은 음을 치더라도 정확히 포개지지 않는다. 이 악기는 화려한 독주보다 음정 사이에 미세한 간격을 만드는 역할로 작품 곳곳에 들어온다. Matias Tarnopolsky의 초연 해설에 따르면 일부 대목에서는 timpani의 막이 아니라 금속 몸통도 두드린다.

악단의 크기는 언제나 전원이 동시에 소리를 낸다는 뜻이 아니다. Adès는 금속성 타악기, 드문드문 들어오는 목관, 긴 호른 선율을 번갈아 전면에 놓는다. 같은 박자가 모든 성부를 묶기보다 서로 다른 빠르기로 움직이는 선율과 짧은 타격음이 만나기도 한다. 이처럼 청각의 초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셋째 악장의 강한 비트는 앞선 악장과 단절된 삽입물이라기보다 이미 조금씩 들려오던 박동이 커진 결과로 들린다.

네 악장의 전개

I. 무표제 악장

카우벨과 공이 먼저 울리고 피아노와 타악기의 음형 사이로 호른의 긴 선율이 나온다. 선율은 한 번 부른 뒤 사라지지 않고 악기와 화성을 바꾸며 진행한다. 현악이 크게 물러나는 중간부에서는 금관과 타악기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 트럼펫의 움직임이 앞부분의 넓은 호흡을 끊어 놓는다. 도입의 금속성 울림과 호른 선율이
압축되어 되돌아오면서 악장은 커다란 아치를 이룬다.

Adès는 훗날 Tom Service와의 대담에서 이 악장을 호른 선율부터 작곡했다고 밝혔다. 샤콘 형식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화성과 반주가 붙으면서 선율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지금 맨 앞에 놓인 도입은 나중에 썼다고 설명한다. 중간부에는 Couperin에서 가져온 소재도 있다고 했다. 실제 작곡 과정에서도 호른 선율이
중심이었고 , 도입의 음향은 완성된 선율보다 뒤에 놓였다.

II. 무표제 악장

베이스 오보에의 긴 하행 선율이 앞 악장의 열린 울림을 어두운 내부로 옮긴다. 악장 중간에는 바이올린이
조용한 하행 음형을 길게 연주하며, 연습용 약음기가 보통의 약음기와도 다른 희미한 소리를 낸다. Tarnopolsky가 이 악장의 중심으로 짚은 E♭ minor는 여기서 선율과 화성에 무게를 준다. 4분의 1음 낮게 조율한 upright piano가 섞이면 그 중심을 둘러싼 악기들의 음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가운데에는 소리의 밀도와 움직임이 커지는 구간이 있지만, 악장은 처음의 하행 움직임을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 초연 해설은 이 악장에 한때 Vatican이라는 제목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행 작품 목록에는 그 제목이 남아 있지 않으며, 공식 구분은 무표제 둘째 악장이다.

III. Ecstasio

셋째 악장은 네 악장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지닌 춤 악장이다. 짧고 어두운 화음 진행 위에서 반복 박동이 시작되고, 타악기와 금관, 현악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그 박동을 보탠다. 리듬은 한 번에 거대한 총주가 되지 않는다. 반복될 때마다 악기와 음역, 강세의 배치가 달라지면서 소리가 더욱 빽빽해지고 , 마침내 악단 전체가 몰아치는 지점에 이른다.

초연 프로그램 노트는 클럽 음악의 집요한 리듬과 이 악장을 연결하며, 낭만주의 교향곡의 스케르초가 하던
역할을 떠올린다. Adès도 1999년 The Independent 인터뷰에서 춤과 약물 복용이 뒤섞인 대형 클럽의
분위기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노 음악을 들으며 짧은 단위가 32회, 64회 반복될 때 생기는 힘에 주목했고, 그 반복을 관현악에 옮겨 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클럽의 분위기는 관현악의 리듬을 조직하는
출발점이었으며 , 타악기뿐 아니라 금관과 현악도 배치를 바꾸며 반복에 참여한다. 앞서 금속 타악기와
피아노가 만들던 불안한 음정도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춤에서는 황홀감과 압박감이 함께 들린다. Paul Griffiths 의 음반 해설은 첫 악장에서 이미 무거운 박동의 조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IV. 무표제 악장

마지막 악장은 낮은 tuba의 소리로 천천히 시작한다. 셋째 악장에서 계속 부풀던 박동이 가라앉은 자리로 첫 악장의 선율, 둘째 악장의 먼 화음, 셋째 악장의 리듬이 돌아와 서로 겹친다. 목관과 카우벨은 첫머리의 열린 울림을 다시 암시한다. E♭ minor의 큰 정점에서는 낮게 조율된 피아노가 먼저 화음을 예고하고, 관현악의 강한 응답이 그 어긋난 음정을 덮는다. 초연 해설이 묘사한 이 돌파 뒤에도 음악은 한 번의 단순한 종지로 정리되지 않는다.

Adès는 Tom Service와의 대담에서 이 작품의 끝에는 차례로 들리거나 동시에 겹치는 여러 종결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마지막의 밝아지는 소리를 출발점으로의 완전한 귀환이라고만 듣기 어렵다. 앞선 세 악장의 재료가 다시 나타나면서도 각기 다른 속도로 끝맺기 때문이다. 일부 음반은 이 악장의 트랙명을 Quasi leggiero로 표기하지만 , Adès의 공식 작품 목록은 넷째 악장에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초연 이후와 연주

John Feeney Charitable Trust의 위촉으로 쓰인 작품은 1997년 10월 1일 Birmingham에서 Simon Rattle 과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가 초연했다. 같은 악단의 후속 공연 뒤에는 Jeffrey Tate와 Minnesota Orchestra의 미국 공연, Rattle과 Birmingham 악단의 유럽 공연이 이어졌다. Royal Philharmonic Society는 1998년 이 작품에 대규모 작곡상을 수여했고, University of Louisville은 2000년 Grawemeyer 작곡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Rattle은 2002년 Berliner Philharmoniker의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에서도 이 곡을 Mahler의 Symphony No. 5와 함께 지휘했다.

Adès는 2020년 Rattle과의 대담에서 초연 리허설 당시 카우벨과 4분의 1음 낮춘 피아노가 실제로 어떻게 들릴지 자신도 미리 확신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Rattle 역시 악보를 처음 보았을 때 일부 대목의 연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악단이 구현했다고 기억했다. 이 회고는 낯선 악기 목록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작품의 출발을 보여 준다. 1998년의 Rattle·Birmingham 녹음과 2016년의 작곡가 ·London Symphony Orchestra 녹음은 그 소리의 간격과 악장 사이의 호흡을 비교해 들을 수 있는 두 기록이다.

주요 자료

Asyla, Faber Music. 위촉, 초연, 작품 시간, 현행 악보 번호와 상세 편성을 확인했다.
Asyla 작품 ·공연 목록 과 녹음 목록, Thomas Adès 공식 사이트. 초연 및 초기 공연 기록과 악장
표기를 확인했다.
Asyla, IRCAM Ressources. Matias Tarnopolsky의 초연 프로그램 노트와 악장별 해설을 확인했다. Full of Noises 발췌, 출판사 Macmillan. Adès가 설명한 첫 악장의 작곡 순서와 작품의 여러 종결을 확인했다.
Adès 인터뷰, The Independent, 1999. 셋째 악장의 클럽 이미지와 테크노 반복에 관한 작곡가의
발언을 확인했다.
Thomas Adès와 Simon Rattle의 대담, The Guardian, 2020. 초연 리허설과 낯선 악기 조합에
관한 두 사람의 회고를 확인했다.
LSO Live LSO0798, Hyperion Records. Paul Griffiths의 음반 해설과 작곡가 지휘 녹음의 악장 표기를 확인했다.
Grawemeyer 수상 목록, University of Louisville. 2000년 수상을 확인했다.
Large-Scale Composition 수상 목록, Royal Philharmonic Society. 1998년 수상을 확인했다. Simon Rattle의 2002년 취임 연주, Berliner Philharmoniker Digital Concert Hall. Asyla와 Mahler의 Symphony No. 5가 함께 실린 공연 기록을 확인했다.